

상해 로지식청년들의 추억, 독자들과 만나다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 신간 추천회 장춘에서



연변인민출판사 당위 서기이며 사장이며 총편집인 랑문화

17일,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2시, 연변인민출판사는 국가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주제 출판 성과인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 신간 추천회를 개최했다.

길림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 협정 문화문자학습위원회 지도자, 길림성 당위 선전부 출판처 부처장 리명,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문석봉, 그리고 신작 주편집들인 주배홍, 소준봉 및 상해, 장춘, 연변 등 지역에서 온 상해지식청년과 신작의 기획, 편집, 출판, 발행 등 사업에 참여한 연변인민출판사 직원 대표, 여러 형태대위 대표, 독자 대표, 매체 기자 등 50여명이 이번 신간 추천회에 참가했다.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는 주배홍, 소준봉 등 2명의 지

식청년이 편집한 회역성 산문집으로 상해 여러 로지식청년들의 회역성 산문 80편 가까이 수록하고 경험자의 각도에서 지난 세기 60, 70년대 상해 지식청년들이 길림 대지에서 경험한 생산생활 상황과 현지 인민들과 쌓은 깊은 우정 그리고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융합의 진실한 장면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는 단지 '길림에 있는 상해지식청년'에 대한 기념성 산문집일 뿐만 아니라 청춘에 관한, 성장에 관한 격려작이기도 하며 그때 그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사람들이 조국변강 건설에 투신하여 변강 소수민족인민들과 고난과 영욕을 함께하고 민족문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문화의 동질감을 증강한 과정을 보여주는 분투사이기도 하다.

추천회에서 연변인민출판사 당위 서기이며 사장이며 총편집인 랑문화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 주편집 주배홍

가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의 출판 상황을 소개했다.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문석봉은 축사에서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의 출판 가치와 의의를 긍정하고 연변인민출판사가 주제 출판 면에서 더욱 분발할 것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가한 귀빈, 지도자와 랑문화 사장 및 신간의 주편집 주배홍, 소준봉 등이 함께 신간을 제막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연변인민출판사는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고양하여 상해지식청년들의 지난 청춘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세월을 되새기는 역사를 기록하여 인민에 봉사하고 시대에 헌신했다. 아울러 역사를 거울로 삼아 자정육인(資政育人)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이는 아주 의의가 있는



《장백고향정—상해지식청년 길림에서》 주편집 소준봉

일이다. 많은 독자들이 반드시 그들의 비범한 분투 경력에서 귀중한 정신적 재부를 섭취하고 교육계발과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5년의 세월이 흘러 상해지식청년들은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고 길림 대지는 한창 멋지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동북 진흥의 큰 시작점에 서있는 새 길림은 력사바탕을 두텁게 하고 분투의 유전자를 전승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길림의 전면 진흥의 참신한 장을 힘차게 써내면서 광범한 상해지식청년들을 포함한 전 성 인민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생활을 현실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번 신간 추천회는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와 연변인민출판사 관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거행됐다.

/ 정현관 류향휘 기자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 발표

18일 오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신간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이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은 연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각종 중국 조선족 민속문물을 정선하여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상세한 문자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조선족 민속세계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중국 조선족 민속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심층적인 발굴일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경의와 전승이기도 하다.

“이 책의 출판은 전통문화의 전승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며 중국 조선족 민속 '문물 + 출판'의 심층 융합 선례를 열었다. 이런 혁신적인 전파 방식은 민속문물의 보호와 전승에 새로운 사료를 제공했다.”

《중국조선족민속문물집성》 편

찬위원회 한광은 대표는 이 책의 편찬 과정을 회고하면서 신간의 출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민속문화를 료해하고 관심하며 그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했다.

중국출판협회 민족출판사업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이 저작의 출판은 조선족 민속문화의 매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출판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고 표하면서 이 작품이 민족문화출판의 전범이 되어 기타 민족문화출판에 거울과 참고가 되길 희망했다.

발표회 말미에는 도서 증정 행사도 열렸다. 길림대학도서관, 장춘시조선족중예술관, 장춘시관성구조선족소학교가 기증 대상으로 공동으로 이 귀중한 책을 받았다.

/ 길림일보

‘경전 전승 · 문화 공유’ 정품도서 열독공유회 장춘서 거행



5월 19일 오전, 연변인민출판사는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국가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경전 전승 · 문화 공유’ 정품도서열독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책을 매개로 18차 당대회이래 출판된 각종 정품도서를 선전하고 독자들에게 중국조선족의 전통문화, 무용예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취지로 개최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부부장 문석봉과 출판처 처장 상급빙, 연변독서협회 회장 송춘도 및 여러 형제출판사 대표, 여러 매체의 기자 및 백여명의 독자가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연변인민출판사 당위 서기이며 사장이며 총편집인 랑문화가 먼저 래빈과 관중들에게 10여년 동안의 정품도서출판 상황을 설명했다.

1951년 8월 설립된 연변인민출판사는 민족성, 지방성과 종합성을 일체화한 소수민족출판사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조선문 도서와 간행물 출판단위이다. 70여년 동안 연변인민출판사는 ‘연변에 립각하여 중국조선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출판리념을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전하며 중국조선족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중심으로 점차 출판 로선을 형성했다. 출판사는 매년 근 200여종의 민족문자 도서와 10종, 126호에 달하는 민족문자 정기간행물을 출판하며 전국 조선어 종합서적의 40% 이상을 출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새시대에 진입하여 연변인민출판사는 고품격, 고품질의 출판 리념을 고수하고 프로젝트 계획과 주요 주제 선정의 발굴, 기획 및 구현을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조선족 작가 창작회본(繪本) 이야기》총서, 《중국조선족무형문화유산도전(圖典)》, 《경전(經典) 읽으며 두가지 언어 학습》총서, 《중국조선족 전통문화 회본》총서, 《중국조선족 방언사전》, 《중국조선족예술사》, 《연변 식물 채색 도지》, 《조선어 대사전》 및 기타 일련의 전통문화,

고전문학, 민속유산 및 대형 도구류 중점 도서를 출시하여 민족문화 브랜드를 구축했다.

이번 행사는 사슬상 정품도서를 매개로 짧은 동영상, 랑독, 연 주 및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 여러 형식을 결합하여 최근년간 연변인민출판사의 정품출판전략의 성과를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중국조선족의 음식, 복식, 노래와 무용, 예술 및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어 현장의 분위기는 활기가 넘치고 뜨거웠다.

주당위 선전부 부부장인 문석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년간 연변인민출판사의 정품민족문자 출판물의 생산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적인 운영 및 관리 수준과 출판 인재의 건설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다양한 사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며 여러차례 국가와 성 및 주급 집단영예를 수상했다. 지금까지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680여종의 민족문자 간행물이 국가도서상한차례, 중국출판 정부도서상 두차례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출판상을 수상했다. 이는 출판사가 주제 선정 및 기획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제 출판 및 우수한 독창적 출판물 출발점으로 하여 고품질 출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시대 및 새 상황은 우리에게 새 과제와 새 요구를 제시했다. 민족출판 종사자들은 력사의 중임을 짊어지고 인민의 두터운 신망을 지니고 있다. 연변인민출판사는 계속해서 가치를 높이 들고 전반적인 정세를 둘러싸고 인민에 봉사하고 개혁, 혁신을 해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단결진보의 주조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민족문자 정품작을 출시하여 사회주의 민족출판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새로운 공헌을 하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이번 열독공유회는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와 연변인민출판사 관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거행됐다.

/ 손맹빈 오건 기자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중문판 신간 발표 및 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 장춘서



저명한 조선족 녀작가 허련순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한창인 가운데 연변인민출판사는 5월 18일 오전 9시, 국가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중문판 신간 발표 및 저명한 조선족 녀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길림성당위 선전부 출판처 1급조사연구원 반태암,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상무부부장 형계파, 부부장 문석봉, 출판처 처장 상급빙, 연변작가협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문덕, 연변도서관 당총지 부서기이며 부관장인 박장호, 주독서협회 회장 송춘도, 신간 저자이자 유명한 조선족 녀작가인 허련순 그리고 장춘 및 연변 지역의 조선족 작가 대표, 신간의 기획, 편집, 출판, 발행 사업에 참여한 연변인민출판사 직원 대표와 여러 형제출판사 대표, 독자 대표, 언론사 기자 등 80여명이 간담회에 참가했다.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은 ‘제14차 5개년 계획’ 국가중점출판물계획 대상에 포함된 중점 도서이며 민족문자출판 전문자금 지원 대상의 하나이다. 《위씨네 사당》 중문판의 출판은 연변인민출판사가 국내의 광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민족단결진보를 선전하고 사회 주류가치를 고양하는 효과적인 조치와 유익한 시도로 출판 구조의 전략적 전환과 장원한 발전에 심

원하고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발표회에서 연변인민출판사 당위 서기이며 사장이며 총편집인 랑문화가 《위씨네 사당》 중문판 출판 상황 보고를 하고 작가 허련순과 정봉숙(영상 축사)이 소설을 쓰고 번역하고 창작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변작가협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문덕이 조선족 작가들을 대표하여 축사를 발표, 《위씨네 사당》 중문판의 출판 가치와 의의를 높이 긍정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지도자와 래빈들은 현장에서 《위씨네 사당》 중문판 신간을 제막하고 연변도서관, 주독서협회 등 단위에 신간을 증정했다.

주당위 선전부 상무부부장 형계파는 “《위씨네 사당》 중문판의 고품질 출판은 연변문학이 연변을 벗어나도록 추진하고 조선족 작가들이 적극적

으로 탐구하고 중화문화 대가정에 자각적으로 융합하는 유익한 시도이며 연변의 선전사상문화사업이 문학창작에 초점을 맞추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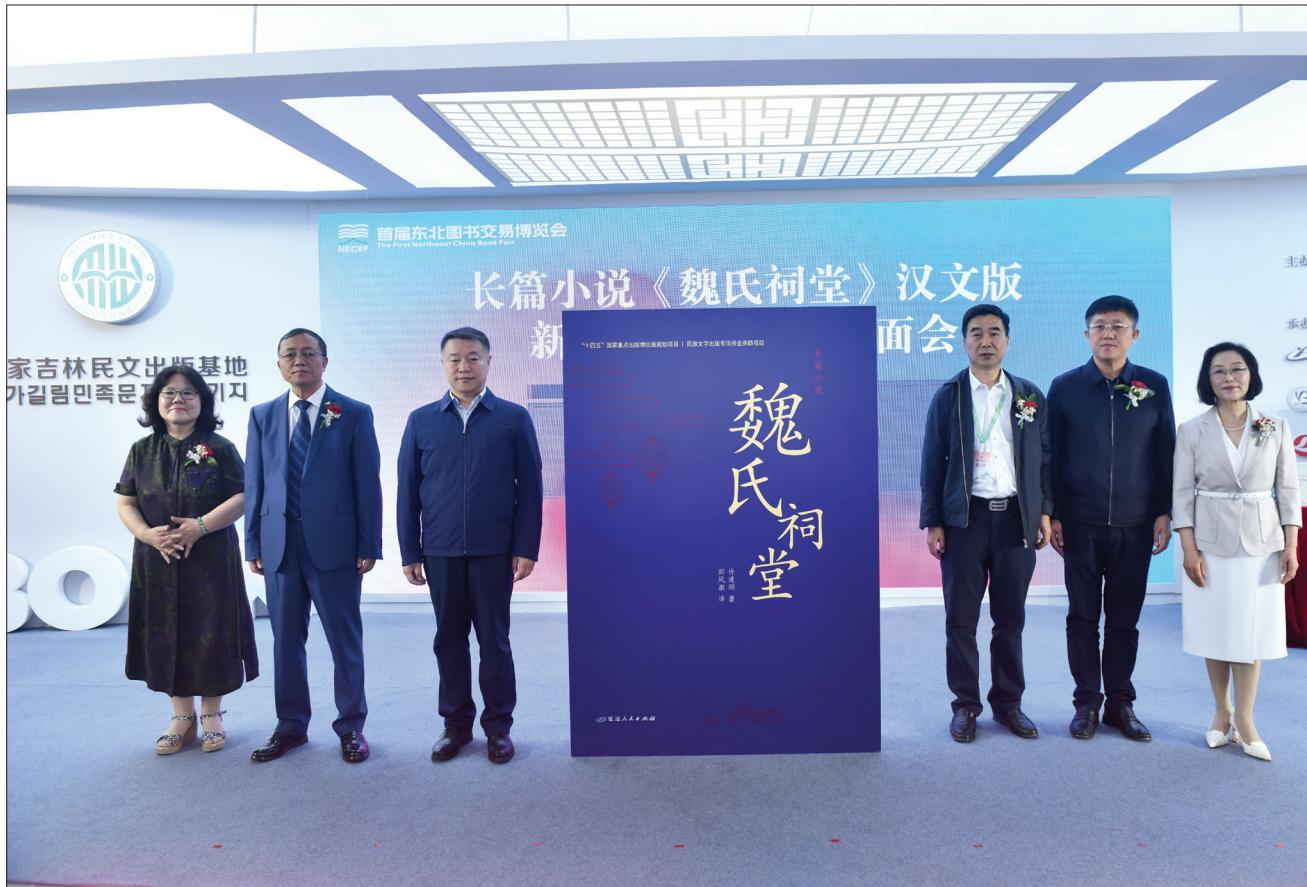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돌이 되는 해이다. 우리 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인솔하여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완강하게 싸우면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건과 영웅인물들이 출현하고 빈곤해탈과 향촌진흥, 민족단결진보사업, 과학기술 혁신발전, 백성들의 일상생활 등 모든 면에서 새시대 문학창작에 끊임없는 동력과 소재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중화문화의 동질감을 끊임

없이 증강하는 토대에서 민족문화의 창조성 전환, 혁신성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창작문예정품 생산능력을 계속 제고하고 새시대에 립각하여 새시대를 써나가고 새시대를 구가하며 위대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연변 이야기가, 길림 이야기가, 중국 이야기를 창작하여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분투하는 공동한 사상도대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정신문화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발표회에서 허련순작가는 독자들과 교류를 진행하고 도서에 서명을 하는 등 도서서명판매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신간도서 발표회는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와 연변인민출판사 관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거행되었다.

/ 오건 손맹빈 기자



《위씨네 사당》 중문판 신간 발표 제막의 한 장면